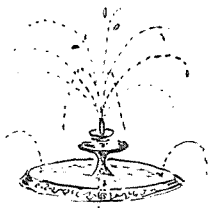


## 로마의 廣場과 분수

김 윤 기



로마는 조각과 분수의 도시다.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일 수 없다. 愛泉으로 알려진 트레비분수를 비롯, 「베르니니」의 작품이라는 나뭇나광장의 「4대강의 샘」, 스페인 계단 아래에 있는 작은 배 모양의 분수 등은 그중에서도 손꼽는 수작들이다.

로마 교외 티볼리에 있는 에스페의 별장에 가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분수의 세계를 본다. 16세기때 당시 추기경 에스페의 집은 전체가 분수의 동산이다. 정원 한복판으로 뚫린 길 양쪽에는 꽃대신 수백개의 분수가 하늘로 치솟으며 물꽃을 만들고 있고, 계단 좌우에도 난간대신 분수들이 물숨을 이루며, 정원의 곳곳에는 폭포, 절벽, 담벽, 지붕 모든 곳에서 분수가 갖가지 그림을 그리며 분출한다.

이 집안에 있는 분수들은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다워, 「킵의 샘」, 「100의 분수」, 「音의 분수」, 「물 올겐 大噴水」 등의 이름이 붙었고, 풍요를 상징하는 여성의 유방에서 쏟아지는 조각분수는 잠시 정신을 잃게 만든다. 이 집안에 있는 분수의 총수는 500여개라고 한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산중의 자연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많은 분수의 가동에 에너지는 한푼어치도 안들며, 또 4백여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분수가 뿜는다고 한다.

로마의 분수는 모든 예술 조각작품에서 샘솟고 있다. 그래서 분수의 조각은 일류 조각예술가들의 작품이기도 하다.

로마는 또 광장(Piazza)이 많은 도시다. 베네치아廣場은 로마의 중심지다. 이 광장



「愛泉」으로 알려진  
트레비 분수.  
돌아선 채 동전을  
던지면 다시  
로마 구경을 하게  
된다는 전설이 있다.

정면에 이탈리아를 통일한 영웅 에마누엘 2세를 기리는 거대한 백악의 기념탑이 있고, 그 맞은 편에 못소리니가 정무를 보던 파시스트黨 본부가 있다. 지금은 박물관과 도서관으로 변신, 조용한 분위기의 건축물이 되었으나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던 무서운 권력의 산실이었다.

이 광장에서 북쪽으로 뻗은 길이 로마의 변화가중심인 코르소大路이고, 이 대로 끝에 포폴로廣場이 있다. 인민광장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광장은 모든 데모행렬의 종착지다. 비가 와도 안하고, 식사시간도 피한다는 로마인의 데모행렬은 화염병을 던지거나 지나가는 교통의 방해도 없이, 하고 싶은 주장만 웅웅 외치다가 이 광장에 와서 몇번 더 웅웅 소리지르는 해산한다. 포폴로광장은 양쪽이 성벽으로 둘러 싸여 타원형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로맨틱한 광장이라면 스페인廣場을 꼽게 된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던 광장이라서 그런지 지금도 광장을 내려다보는 137개의 계단은 세계각

국에서 모인 젊은이들이 짝을 지어 앉아 사랑을 속삭이고 아이스크림들을 먹는다.

안텔센의 「죽흥시인」에 등장하는 주인공 안또니오의 伯父 펠포가 앉아있기도 했던 이 계단에는 수없이 많은 시인·화가·예술가들이 모여 작품을 구상하는 곳이다.

계단의 오른쪽에 있는 집은 영국의 시인 「킷츠」가 살던 집이고, 그리고 그는 1821년 이곳에서 죽음을 맞았다. 광장 오른쪽에 있는 「카페·그레코(caffé Greco)」는 200년의 역사를 가진 집이며, 피테, 안텔센, 킷츠, 바이론, 쇼팡, 리스트 등 세계 유명 예술인들이 드나들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한개도 아닌 3개의 유명한 분수를 한꺼번에 가진 나뉘나廣場은 로마에선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다. 한복판에는 나일江·간디스江·도나우江·라프라타江(南美) 등 유명한 강을 의인화(擬人化)한 4명의 남자가 거대한 오베리스크 밑의 대리석받침을 받히고 있는 「4대강의 샘」을 비롯, 「흑인의 샘」, 「냅쑤의 샘」이란 이름을 갖은 3개의 조각분수가 나란히 있다.

해가 질무렵 노을의 반사를 받으면 조각은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고 분수에서 뿜은 물은 붉은빛 불꽃으로 변하여 아름다운 극치를 보인다.

세계 철도의 종착역이라는 테르미니驛에는 「500人廣場」과 「공화국광장」이 겹쳐 있다.

공화국광장을 로마인들은 「에세도라廣場」이라고 부른다. 이 광장터는 옛날에는 거대한 공중목욕탕이었던 자리다. 광장정면에 있는 로마국립박물관자리에 목욕탕이 있었고, 지금의 광장은 목욕을 마치고 나와 산책하던 자리였다 한다. 지금 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둥근 아케이드 건물은 당시 목욕탕의 외벽이다.

로마시대에는 공중목욕탕이 많았다. 공중목욕탕은 목욕을 위한 목적에서보다 사교장으로서 활용되었던 것 같다. 정치가들의 미팅이 목욕탕에서 이루어졌고, 파티를 이곳에서 열기도 했다. 로마의 남쪽에 있는 카라카라욕탕터에 가보면 화려한 대리

석의 바닥 모양을 지금도 볼 수 있다.

바르베리니廣場은 3각형의 모양을 가진 이상한 광장이다. 광장 중앙에 베르니니의 조각분수가 있고, 「즉흥시인」의 주인공 안토니오 詩人の 생가(生家)도 그 부근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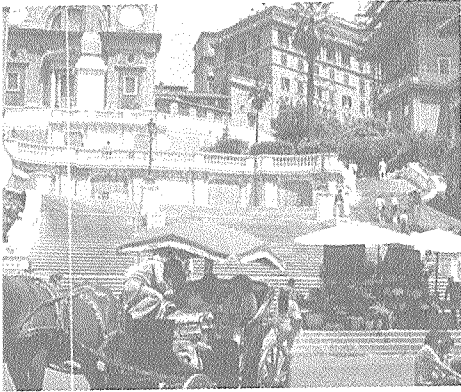
이밖에도 로마에는 마조레廣場, 라테라노廣場, 주제페마티니廣場, 티블티노廣場, 빗또리오에마누엘2세廣場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이 많은 廣場이 있다.

그런데 로마의 광장은 몇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큰 광장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5.16광장이나, 북경의 천안문광장같은 넓은 광장은 하나도 없다. 한껏 넓어야 서울시청앞 광장 정도다. 그리고 로마의 광장은 모양이 가지가지다. 편지봉투처럼 기다란 것, 타원형, 삼각형 등 멋대로다. 그대신 광장에는 꼭 분수가 있고, 예술조각 작품이 있다. 로마의 광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보통의 집회장소가 아니라, 박물관이라 해야 맞을 것 같다.

바티칸 시티 베드로 성당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 이날 교황 알현이 있다는 풍문을 듣고 이처럼 많은 인파가 모였다.



어느날 나는 아침 일찍 스페인광장으로 산보를 나갔다. 아침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다. 아침 햇빛을 받은 로마의 붉은 빛 기와지붕들은 모자이크 담요를 펴놓은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스페인 계단의 아침 풍경. 계단 오른 쪽에는 시인 '킷츠'가 살던 집이 있고, 광장 아래엔 '카페 그레꼬'가 있다. 이 카페는 괴테, 안텔센, 킷츠, 바이론, 쇼팡, 리스트 등이 드나들던 집이다.

계단아래로는 멀리 베르니니의 아버지 작품이라는 조각배 분수가 보인다. 오른쪽으로는 포폴로廣場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뚫렸고, 왼쪽으로는 바르베리니廣場으로 내려가는 골목길이 뚫렸다. 정면의 계단은 처음엔 넓게 탁 트였으나, 중간쯤에서 꽃밭이 우거진 비탈공원이 나오고 계단은 양쪽으로 갈라져 좁아진다. 이 좁아진 계단 부근에 2층집과 3층집이 나란히 서 있다.

킷츠의 집은 어느 집일까. 좀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싶어 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였다. 검은 머리에 푸른눈을 가진 젊이소녀 3명이 덤벼들면서 신문을 사달라고 매달린다. 웃은 허름했으나 너무나 예쁘고 귀여운 소녀들이었다. 꼭 한번 안아주고 싶은 애정까지 느껴졌다.

이탈리아 글을 모르는 나에게 신문을 사달라는 요청은 당치않은 일이었으나, 한장쯤 사주고 싶었다. 바로 그때다. 지나가던 중년 신사 한 사람이 소녀들에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다. 소녀들은 혼비백산 사방으로 흩어져 쫓지도 보이지 않게 사라졌다. 중년신사는 나에게 지갑을 조심하라고 충고하고 가버렸다. 잠시 나는 얼빠진 사람처럼 서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저고리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다. 지갑이 없어졌다. 그 지갑속엔 테르미니驛에서 바꾼 이탈리아 돈이 들어 있었다. 로마에 머무는 동안 쓰려던 돈이다. 두번 세번 뒤지고, 혹시나 싶어 다른 호주머니도 뒤졌지만 지갑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분이 과히 나쁘지 않은 것이다. 물론 그 지갑속엔 이탈리아에서 쓸 돈만 있었고, 달리는 호텔의 сей프티박스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그 돈은 로마구경에 쓸 돈의 전부이었다.

그 젊이소녀의 얼굴은 지금이라도 만나면 알아볼 수 있을 것처럼 선명하다. 차라리 돈을 달라고 했었으면 더 많은 돈을 기부종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영구히 없어지지 않는다.

〈필자 = 해외의학 교류회장 · 최신 여행 정보 발행인〉